

제28회 한남대학교 전국 고교백일장 심사평(산문 부문)

장수익(국어국문·창작학과 교수)

제28회 한남대학교 주최 전국고교백일장에는 전국 80여개 고교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예년에 비해 개최 시기가 늦어져 참가 학생의 수는 소폭 줄었지만, 정성스레 작품을 쓰는 열기는 더욱 높았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후로도 우리 백일장이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

이번 백일장의 글제는 '길'과 '진실'이었다. 친숙하지만 문학적 상징성을 함축하는 제재여서 인지 좋은 글이 많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산문부에서는 여전히 어설픈 소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위원들은 매우 아쉬움을 느꼈다. 우리 백일장에서 요구하는 1200~1800자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일정한 수준에 다다른 소설을 쓰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거창한 구상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내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차라리 그러한 노력을 일반적인 산문을 쓰는 데 썼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아마도 미리 연습한 소설에다 글제를 끼워 넣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문장력도 있고 서사 구성도 그럴듯한 작품도 있었지만 이런 글들은 역지로 끼워 넣은 부분 때문에 전체 구성상 부조화가 일어나 탈락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우리 백일장에 참가할 학생들은 이미 써본 작품을 조금 고쳐 쓴 경우는 글제와도 부합되지 않기에 탈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진출한 작품은 김초희, 김동현, 김해솔, 이정민의 글이었다. 먼저 김초희의 글은 성적으로 인한 아빠와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앵무새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잘 드러낸 점이 주목되었다. 그리고 김동현의 글은 연극배우인 아빠의 좌절과 고통을 슬픔 어린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의 마음을 감성적인 문체로 드러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김해솔의 글은 신작로 공사에 돈 때문에 마음과 달리 참가할 수밖에 없는 아빠의 사정을 소재로 삼아 '추억을 지니는 길'이 지니는 소중함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마지막으로 이정민의 글은 고교생답지 않은 깊은 사색을 사과나무라는 상징이 있는 길을 소재로 드러내었으며, 무엇보다 그 길을 '나를 찾는 길'로 한층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한 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우리 백일장이 문학적 경험과 사색을 쌓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기 바라며, 수상한 학생들에게도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우리 백일장이 끊임없이 개최되어 많은 학생들이 문학을 통한 학창 시절의 값진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